

한·몽 양국 언어 학습자를 위한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감탄문 대조 연구*

김 기 성**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몽골어 감탄문에 대한 유형, 구성 및 그의 의미, 기능 등을 종합, 정리해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어 감탄문과 서로 대조 분석해 보았다. 몽골어 감탄문의 유형을 1) 문말 억양/어조 감탄문, 2) 서술어 반복 감탄문, 3) 감탄사, 호칭어 감탄문, 4) 의문사 감탄문, 5) 첩사(양태 첩사) 감탄문 등으로 분류하고, 한국어 감탄문을 구성하는 감탄형 종결어미들과의 대응 예를 살펴며 서로 대조 분석하였다.

우선 양 언어는 억양, 어조, 감탄사 등을 활용하여 감탄문을 실현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몽골어와 한국어는 감탄문을 형성하는 방식에서 일부 차이를 보인다. 즉, 몽골어의 경우 감탄문은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의 문말 종결 형태가 변하지 않고, 대신 억양과 어조 등을 통해 감탄의 의미를 전달한다. 한편, 한국어는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을 구성하는 종결어미처럼 별도의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해 감탄의 의미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 몽골어는 감탄문을 형성할 때 문장 구조나 종결어미의 사용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한국어는 감탄문을 형성할 때 감탄형 종결어미를 도입하며 문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또한 몽골어는 종결 서술어 뒤에 각종 양태 첩사를 별도로 덧붙여 씌으로써 감탄문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한국어에는 이와 같은 방법이 없다.

한국어에서 말하는 감탄문은 주로 1인칭 화자와 평서문 등에 상관되지만, 몽골어의 감탄문은 다양한 유형(평서형, 명령청유형, 의문형)에 따라 1인칭 화자뿐만 아니라 2인칭, 3인칭 청자 모두와 관련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의미상으로 1인칭 화자의 평서형 감탄문의 경우는 한국어 감탄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2·3인칭의 청자와 관련되는 명령·청유형 감탄문, 의문형 감탄문의 경우는 차이를 보인다. 즉, 한국어 감탄형 어미 ‘-(는)군요, -(는)구나, ……」 등이 갖고 있는 처음 알거나 새롭게 알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감탄과 놀라움의 의미뿐만 아니라 주의, 경고, 비난, 질책, 화냄, 언짢음, 귀찮음, 짜증냄 등의 의미가 들어간 주의, 경고문의 성격도 짚어짐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현대몽골어, 감탄문, 억양, 감탄사, 호칭어, 의문사, 첩사, 한국인 몽골어 학습자,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 양국 언어 학습자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몽골학전공 연구전담교수 / komong@naver.com

| 목 차 |

I. 서 론	III.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감탄문 대조 분석
II. 현대몽골어 감탄문	IV. 결 론

I. 서 론

이 연구는 현대몽골어의 ‘감탄문(感歎文, exclamatory sentence)’¹⁾에 대한 유형(문 종결 형태) 및 구성, 그의 의미, 기능 등을 정리해 살펴보고, 이후 이를 기준으로 한국어 감탄문²⁾과의 대응 양상 등을 통해 서로

- 1) 현대몽골어의 ‘감탄문(感歎文, exclamatory sentence)’이란 Цэндсүрэнгийн Тэрбиш(1994), Rita Kullmann · D.Tserenpil(1996) 등의 ‘exclamatory sentence’와 Ш.Лувсанвандан(1956), Ж.Төмөрцэрэн(1966), Б.Рагчаа · Ц.Жанчивдорж(1968), Ш.Барайшир(1989), Б.Пүрэв-Очир(1997), Б.Пүрэв-Очир · А.Цог-Очир · Ө.Мөнхдолгор(2012), М.Базаррагчаа · О.Самбуудорж · Б.Мөнгөнцэцэг · Л.Цэрэнчимэд(2022) 등의 ‘Анхааруулах өгүүлбэр’를 가리킨다(Цэндсүрэнгийн Тэрбиш, *Монгол хэл өөрөө сур*, Улаанбаатар, 1994, p.155; Rita Kullmann · D.Tserenpil, *Mongolian Grammar*, Jensco Ltd., Hong Kong, 1996, p.362; Ш.Лувсанванда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зүйн сурах бичиг* (дэд дэвтэр, үгүүлбэрийн зүй, дунд сургуулийн 6-7 дугаар ангид үзнэ),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Улаанбаатар, 1956, pp.4-5; Ж.Төмөрцэрэн, ‘Анхааруулах өгүүлбэр’,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зүй*,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хэрэг эрхлэх хороо, Улаанбаатар, 1966, p.243; Б.Рагчаа · Ц.Жанчивдорж, *Монгол хэлний өгүүлбэр зүй-7 дугаар ангид үзнэ*, Улаанбаатар, 1968, pp.9-10; Ш.Барайшир, ‘Анхааруулах өгүүлбэр’,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өгүүлбэрзүй*, Улаанбаатар, 1989, pp.193-194; Б.Пүрэв-Очир,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өгүүлбэрзүй*, Улаанбаатар, 1997, pp.248-249; Б.Пүрэв-Очир · А.Цог-Очир · Ө.Мөнхдолгор, ‘Анхааруулах өгүүлбэр’,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Их Сургууль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Сургууль Монгол Хэлшинжлэлийн тэнхим,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2012, pp.281-282; М.Базаррагчаа · О.Самбуудорж · Б.Мөнгөнцэцэг · Л.Цэрэнчимэд, *Монгол хэл судлал XI боть өгүүлбэрзүй*, Улаанбаатар, 2022, pp.175-177). 한편, 김기성(2008)에게서는 ‘서술법’ 내의 ‘감탄형’ 등과 같이 문장 유형으로서의 감탄문이 아닌, 즉 서법이라는 특정한 문법 범주를 실현하는 형태(감탄형) 등으로 언급, 서술하고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김기성, ‘현대 한국어와 몽골어의 서법 대조 연구’, 『몽골학』 25, 한국몽골학회, 2008, 19-21쪽). 이 연구에서는 문장 유형으로서의 감탄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몽골어는 ‘할흐(할하) 방언’을 기준으로 한 ‘키릴 현대몽골어’를 가리킨다.
- 2) 한국어 감탄문은 주로 서술어로 사용되는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에, 높임법(상대높임법)에 따른 20여 개의 감탄형 종결어미를 연결해 사용한다. 즉, ‘없음’ (하심시오체: 아주높임, 극존칭), ‘-(는)군요’ (해요체: 두루높임), ‘-(는)구려’ (하요체: 예시높임, 존칭), ‘-(는)구먼’ (하계체: 예사낮춤), ‘-(는)군’ (해체/반말체: 두루낮춤), ‘-(는)구나’ (해라체: 아주낮춤) 등과 같은 다양한 감탄형 종결어미를 연결해 사용한다(*뒤에 표로 정리). 다만, 아주높임, 극존칭에 해당하는 감탄형 종결어미는 없다. 형용사 어간에는 ‘-군요’, ‘-구려’, ‘-구먼’, ‘-군’, ‘-구나’ 등을 연결해 사용하고, 동사 어간에는 앞에 ‘-는’을 붙여 ‘-는군요’, ‘-는구려’, ‘-는구먼’, ‘-는군’, ‘-는구나’ 등과 같이 사용한다. 한편, 감탄문은 “상태에 대한 묘사가 많으므로 서술어로는 형용사가 주로 쓰인다”(김종록,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문법』, 도서출판 박이정, 2013, 259쪽). 이 외에도 학자, 연구자마다 감탄형 종결어미들의 종류(형태) 및 개수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중 비교적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위에 언급한 일부 감탄형 종결어미들을 대표형으로 삼기로 한다.
- 한국어의 감탄문 또는 감탄형 종결어미(종결접미사)의 유형, 의미, 기능 등과 관련한 일부 선행연구들에 대해선 노대규(1983), 한길(1991), 윤석민(2000), 조민하(2019), 에브렌셀 펠린 에브림(2020), Yao Ze(2022), 두캐운(2023) 등에서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노대규, 『국어의 감탄문 문법』, 보성문화사, 1983; 한길, 『국어종결어미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1; 윤석민,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집문당, 2000, 125-141쪽; 조민하, ‘한국어 감탄문 설정의 비판적 고찰 - 구어 반말체 종결 어미의 억양 분석을 통하여 -’, 『우리말글』 80, 우리말글학회, 2019, 58-59쪽; 에브렌셀 펠린 에브림, ‘한·터 감탄 표현 대조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5-8쪽; Yao Ze, ‘한·중 감탄문의 대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22, 4-9쪽; 두캐운, ‘한·중 감탄문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10-15쪽).

대조 분석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주로 문말 형식(감탄형 종결 형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지만, 몽골어 감탄문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문장 전체를 아울러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서 감탄문이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³⁾에 따르면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즉, 기쁨, 슬픔, 경애, 칭찬, 감사, 놀람 등과 같은 화자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독백으로 표현하는 형식의 문장이다. 화자의 느낌, 감정 등을 표현하므로 화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때로 문맥에 따라선 주의, 경고나 우려의 감정적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탄문을 통해 화자의 느낌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결국 양국 언어의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감탄 표현, 또는 감탄문의 올바른 사용과 이해는 양 언어의 학습자들에게 서로 간의 회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이에 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양 언어의 감탄문이 서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 한국과 몽골 양국의 언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감탄 표현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대몽골어에서 감탄문(анхааруулах өгүүлбэр)이란 두려움, 기쁨, 즐거움, 고마움(감사), 놀람 등의 감정을 표현하며 특별하고 독특한 억양, 어조를 지닌 문장을 일컫는다. 몽골어의 감탄문은 의문문, 명령문, 평서문의 어느 형태로든지 나타낼 수 있으며, 소리 내어 말하는 억양 및 어조로 실현한다. 또한 감탄사(аялга үг), 첩사(сул үг), 호칭어(хандсан үг) 등을 사용해서 실현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문장의 앞부분에 적절한 감탄사를 취하며, 문장 끝부분의 억양 및 어조는 길고 높다. 따라서 특정 문장의 마지막 단어 끝이 단모음으로 오게 되면 억양 및 어조의 영향으로 이를 장모음처럼 길게 또는 지나칠 정도로 길게 말한다.⁴⁾

한편, 이 연구에서의 한국어 감탄문은 주로 감탄형 종결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며, 화자가 기쁨, 슬픔, 놀람 등의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독백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의 문장이다. 따라서 화자는 항상 1인칭이어야 한다. 또한 ‘야, 와, 어머니’ 등의 감탄사 또는 ‘아주, 정말, 대단히, 무척’ 등의 부사(정도부사)와 함께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장의 맨 뒤에는 감탄의 문장 부호 ‘!’를 붙인다.⁵⁾ 일반적으로 문말의 억양은 문장 끝 서술어 부분에서 높아졌다가 어미에 이르러 급격히 하강한다.⁶⁾

여기에서 보면, 양 언어가 문말의 억양이나 감탄사 등을 사용하여 감탄문을 실현하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지만, 문말 종결 형태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를 보인다. 즉, 몽골어 감탄문은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을 구성하는 종결어미/시제종결어미, 한정연결어미(종결형 사용), 인칭종결어미/ 중 어느 형태로든지 나타날 수 있거나, 또는 그 종결 서술어 뒤에 각종 첩사(양태 첩사)를 따로 띄어 붙여 씌으로써 감탄문을 구성하지만, 한국어의 감탄문은 별도의 감탄형 종결어미로 문장을 끝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감탄문」,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검색일 : 2023. 11. 10.)

4) Ш.Барайшир, *op. cit.*, 1989, pp.193~194.

5) 김종록, 앞의 책, 2013, 259쪽.

6)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분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2018, 486쪽.

다시 말해, 몽골어 감탄문이 문장의 끝에 1) 시제종결어미, 2) 한정연결어미(종결형 사용), 3) 인칭종결어미를 취한 명령문, 의문문, 평서문의 어느 형태라도 올 수 있는 데 반해, 한국어 감탄문은 1) ‘없음’ (하십시오체: 아주높임, 극존칭), 2) ‘-(는)군요, -(는)구먼요, -아요/어요, -네요, -지요, ……’ (해요체: 두루높임), 3) ‘-(는)구려, ……’ (하요체: 예사높임, 존칭), 4) ‘-(는)구면, ……’ (하계체: 예사낮춤), 5) ‘-(는)군, -구면, -아/어, -네, -지, ……’ (해체/반말체: 두루낮춤) 6) ‘-(는)구나, -아라/어라, ……’ (해라체: 아주낮춤) 등과 같은 20여 개의 감탄형 종결어미를 주로 연결해 사용한다.⁷⁾ 이에 대해선 뒤에서 다시 언급하고, 표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감탄문에 대한 소개와 연구는 한국어와 몽골어 모두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연구와 같이 양 언어의 감탄문에 대한 독립된 주제로서의 대조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⁸⁾

이 같은 대조 연구를 통해 몽골어나 한국어와 같은 특정 언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모국어와 학습 대상 외국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됨으로써 양 언어에 대한 학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 같은 비교 및 대조 연구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에게도 언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가치가 충분함으로 이러한 비교, 대조 연구는 필요성을 갖는다.

필자는 우선 현대몽골어의 일부 교재 및 문법서 등에 소개되고 있는 감탄문과 그의 유형, 의미, 기능 등을 종합, 정리해 이를 논의의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 여기에 유사 의미, 기능을 갖는 한국어 감탄문의 대응 표현(양상)을 순차적으로 대조,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현대몽골어 감탄문

현대몽골어의 감탄문은 일부 교재나 전통 문법서에서 ‘의문문, 명령문, 평서문을 기뻐함(즐거워함), 미워함(노여워함, 불만스러워함), 무서워함(두려워함), 놀람(충격받음), 놀람(당혹스러움), 혐오함(싫어함, 역겨워함,

7) 김종록(2013)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탄형 종결어미와 이익섭(2005),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2018) 등에서 예를 들고 있는 일부 감탄형 어미들을 절충하였다. 이들 감탄형 어미는 연구자마다 종류와 개수에서 차이를 보인다(김종록, 앞의 책, 2013, 260쪽;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79~180쪽;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 앞의 책, 2018, 486쪽).

8) 양 언어에 대한 독립된 단일 주제로서의 감탄문 대조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이 연구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몽골어의 문장 종결어미(시제종결어미, 인칭종결어미, 한정연결어미, 서법(서술법), 활용어미, 첩사, 감탄사, 호칭어, 특수문장 등에 관한 일부 연구들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선 각각 鄭堤文(1986), 송재목(2003a, 2003b), 강신(2004), 김기선(2008), 김기성(2008, 2013), 솔롱고(2008), 유원수(2009), 김학선(2009), 박상택(2013) 등을 참조할 수 있다(鄭堤文, 『할하방언의 언어구조』, 『몽골어와 투구스어』, 민음사, 1986, 127~131쪽; 송재목, 『한국어와 몽골어의 활용어미 대조 분석 1-몽골어 직설법 어미와 명령법 어미를 중심으로-』, 『한글』 262, 한글학회, 2003a, 63~96쪽; 송재목, 『한국어와 몽골어의 활용어미 대조 분석 2-몽골어 동명사어미와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언어학』 37, 한국언어학회, 2003b, 125~143쪽; 강신, 『현대몽골어 연구』, 문예림, 2004; 김기선,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특수문장(대용, 생략, 도치, 감탄) 대조 연구』, 『몽골학』 24, 한국몽골학회, 2008, 125~168쪽; 김기성, 앞의 논문, 2008, 30~37쪽; 김기성,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감탄사 대조 연구』, 『몽골학』 35, 한국몽골학회, 2013, 223~259쪽; 솔롱고, 『한국어와 몽골어의 연결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비교 고찰』,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유원수, 『몽골의 언어와 문화』, 소나무, 2009, 148~154쪽; 김학선, 『종결어미』,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문법 비교 연구』, 한국문화사, 2009, 124~168쪽; 박상택(2013), 한·몽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언어학 연구』 28, 한국중원언어학회, 2013, 49~80쪽).

질책함, 경멸함) 등의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말하게 되면 감탄문이 됨. 대부분 문장의 앞에 적절한 감탄사가 있음. 또한 문장 마지막 단어의 끝은 장모음으로 나타나게 됨. 끝음절에 단모음이 있는 경우는 장모음이 되며, 이미 장모음이 있는 경우는 그보다 더 긴 장모음처럼 취급함. 또한 해당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때도 있음. 문어에서는 감탄문 끝에 느낌표(!)를 찍음,⁹⁾ ‘감탄문은 기뻐함, 두려워함(꺼림), 놀람(기겁함, 경악함), 비난함(나무람, 질책함, 책망함, 혐오함) 등으로 사람의 감정을 예리하게 표현함. 감탄문 끝의 억양은 높으면서 길게 발음함. 감탄문은 다양한 유형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므로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모두 감탄의 성격을 지닐 수가 있음. 현대몽골어에서 감탄문은 기본적으로 1) 특정 문장의 마지막 단어 끝이 단모음이면 장모음처럼 되게 하거나 일반적인 장모음이면 더욱 긴 장모음이 되게 하는 등의 음조, 억양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감탄문을 만드는 경우, 2) 질문, 의문의 의미를 지닌 단어를 해당 의미가 아닌 어떤 특정한 감정을 보여주면서 감탄문을 만드는 경우, 3) 감탄사, 호칭어, 일부 침사(수식사)를 사용해 감탄문을 만드는 경우 등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음¹⁰⁾ 등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또한 ‘두려워함(꺼림), 기뻐함, 놀람(기겁함, 경악함)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말하는 독특한 음조, 억양을 지닌 문장. 의문문, 명령문, 평서문의 어떤 형태로든지 실현할 수 있음. 감탄문은 음조, 억양으로 만들. 감탄문은 대부분 문장 앞에 적절한 감탄사를 취함.¹¹⁾ 감탄문 끝의 억양은 길고 높으므로 해당 문장의 마지막 단어 끝에 단모음이 오게 되면, 이러한 억양의 영향으로 장모음처럼 길게 발음되거나 그보다도 더 지나치게 길게 발음되는 법이 있음,¹²⁾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¹³⁾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됨. 대부분 1) 평서문과 다른 억양(문장 마지막 모음을 길게 발음), 2)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 형태, 3) 침사가 연결된 형태와 같은 3가지 방법으로 형성됨. 부정문이 올 수도 있음. 느낌표(!)로 마침,¹⁴⁾ ‘화자가 주변의 자연이나 사회 요소(사물) 및 현상 등에 관해 얘기할 때 굉장히 격동적으로 말하는 감탄의 억양을 지닌 문장.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형태의 다양한 유형을 지니고 있으므로 평서형 감탄문, 의문형 감탄문, 명령형 감탄문 등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기뻐함, 두려워함, 놀람, 혐오함, 분노함 등과 같은 감정의 다양한 색채와 의미를 표현함. 감탄의 억양은 해당 문장의 마지막 단어의 음절이 길어져서 긴 장모음으로 발음되며, 감탄사, 호칭어, 혐오, 분노와 같은 감정 묘사의 도움으로 감탄문을 형성할 수 있음¹⁵⁾과 같은 언급도 살펴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일부 학자들의 현대몽골어 감탄문에 대한 정의와 그의 기능 및 역할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9) Ш.Лувсанвандан, *op. cit.*, 1956, pp.4-5.

10) Ж.Төмөрцэрэн, *op. cit.*, 1966, p.243.

11) 해당 설명에 대한 예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Чи номоо унш /니 책 읽어-어라, ……)/”라는 명령조 문장의 앞에 ‘Хүүеэ!’라는 단어를 첨가해 ‘Хүүеэ! Чи номоо унш! /야! 너 책 (중) 읽어-어라, -지, ……)/”라고 하면 주의(경고-감탄)를 주며 명령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12) Ш.Барайшир, *op. cit.*, 1989, pp.193-194.

13) Цэндсүрэнгийн Тэрбиш, *op. cit.*, 1994, p.155.

14) Rita Kullmann · D.Tserenpil, *op. cit.*, 1996, p.362.

15) Б.Пүрэв-Очир, *op. cit.*, 1997, pp.248-249.

〈표 1〉 현대몽골어 감탄문의 정의 및 기능, 역할

학자, 연구자	현대몽골어 감탄문의 정의 및 기능, 역할
Ш. Лувсанвандан(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문문, 명령문, 평서문을 기뻐함(즐거워함), 미워함(노여워함, 불만스러워함), 무서워함(두려워함), 놀람(충격받음), 놀람(당혹스러움), 혐오함(싫어함, 역겨워함, 질색함, 경멸함) 등의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말하게 되면 감탄문이 됨. ■ 대부분 문장의 앞에 적절한 감탄사가 올. ■ 문장 마지막 단어의 끝은 장모음으로 나타나게 됨. 끝음절에 단모음이 있는 경우는 장모음이 되며, 이미 장모음이 있는 경우는 그보다 더 긴 장모음처럼 취급함. ■ 해당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때도 있음. ■ 문어에서는 감탄문 끝에 느낌표(!)를 찍음.
Ж. Төмөрцэрэн(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탄문은 기뻐함, 두려워함(까림), 놀람(기겁함, 경악함), 비난함(나무람, 질책함, 책망함, 혐오함) 등으로 사람의 감정을 예리하게 표현함. ■ 감탄문 끝의 억양은 높으면서 길게 발음함. ■ 감탄문은 다양한 유형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므로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모두 감탄의 성격을 지닐 수가 있음. ■ 현대몽골어에서 감탄문은 기본적으로 1) 특정 문장의 마지막 단어 끝이 단모음이면 장모음이 되게 하며, 일반적인 장모음이면 더욱 긴 장모음이 되게 하는 등의 음조, 억양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감탄문을 만드는 경우, 2) 질문, 의문의 의미를 지닌 단어를 해당 의미가 아닌 어떤 특정한 감정을 보여주면서 감탄문을 만드는 경우, 3) 감탄사, 호칭어, 일부 첩사(수식사)를 사용해 감탄문을 만드는 경우 등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음.
Ш. Барайшир(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려워함(까림), 기뻐함, 놀람(기겁함, 경악함)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말하는 독특한 음조, 억양을 지닌 문장. ■ 의문문, 명령문, 평서문의 어떤 형태든지 있을 수 있음. ■ 감탄문은 음조, 억양으로 만들. ■ 감탄문은 대부분 문장 앞에 적절한 감탄사를 취함. ■ 감탄문 끝의 억양은 길고 높으므로 해당 문장의 마지막 단어 끝에 단모음이 오게 되면, 이러한 억양의 영향으로 장모음처럼 길게 발음되거나 그보다도 더 지나치게 길게 발음되는 법이 있음.
Цэндсүрэнгийн Тэрбиш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Rita Kullmann · Tserenpil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됨. ■ 대부분 1) 평서문과 다른 억양(문장 마지막 모음을 길게 발음), 2)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 형태, 3) 첩사가 연결된 형태와 같은 3가지 방법으로 형성됨. ■ 부정문이 올 수도 있음. ■ 느낌표(!)로 마침.
Б. Пүрэв-Очир(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가 주변의 자연이나 사회 요소(사물) 및 현상 등에 관해 얘기할 때 굉장히 격동적으로 말하는 감탄의 억양을 지닌 문장. ■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형태의 다양한 유형을 지니고 있으므로 평서형 감탄문, 의문형 감탄문, 명령형 감탄문 등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기뻐함, 두려워함, 놀람, 혐오함, 분노함 등과 같은 감정의 다양한 색채와 의미를 표현함. ■ 감탄의 억양은 해당 문장의 마지막 단어의 음절이 길어져서 긴 장모음으로 발음되며, 감탄사, 호칭어, 혐오, 분노와 같은 감정 묘사의 도움으로 감탄문을 형성할 수 있음.

한편, Б.Пүрэв-Очир · А.Цог-Очир · Ө.Мөнхдолгор(2012)에서는 Б.Пүрэв-Очир(1997)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은 없다. 단지, 일부 서술 내용에 대한 축소, 삭제와 더불어 용례의 예문 정도를 약간 수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이라 할 수 있는 М.Базаррагчаа · О.Самбуудорж · Б.Мөнгөнцэцэг · Л.Цэрэнчимэд(2022)에 따르면, 몽골어 감탄문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말로 직접 표현하기 전에 무심코 감탄, 탄복하는 상태의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을 말한다. 특정 문장이 주요 의미로 어떤 대상에 대한 감탄과 탄복을 나타낸다면 해당 문장의 끝에는 느낌표(!)를 붙인다. 하지만, 이러한 감탄의 의미가 앞, 뒤 문장의 맥락에 따라 감탄이나 탄복이 아닌 조언, 권고, 주의, 경고 등의 화자 마음속 태도를 표현하는 경우는 느낌표를 붙일 필요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장은 의문형이라 할지라도 말하는 목적에 따라 긍정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이런 문장의 끝에는 대부분 물음표가 붙거나, 간혹 앞, 뒤 문장의 의미에 따라 마침표가 붙는 때도 있다.¹⁶⁾

한편, 감탄문은 두 종류의 유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비정형문(бүтэц бус өгүүлбэр)을 감탄문의 구성에 포함했는지, 포함하지 않았는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적합한 예문들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 비정형문을 감탄문의 구성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감탄(гайхаж бишрэх 탄복, 감복), 주저함(эргэлзэж тээнэгэлзэх 주춤, 망설임), 기뻐함(баярлаж багдах 고마워함), 두려워함(айн эмээх 무서워함, 겁냄, 놀람), 경악함(очин сандрах 놀람, 당황함), 화냄(уурлаж хилэгнэх 분노함, 격노함, 노여워함), 싫어함(дургүйцэж жигших 미워함, 증오함, 혐오함) 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¹⁷⁾

2. 비정형문을 감탄문의 구성에 포함하더라도 역시 감탄(гайхаж бишрэх 탄복, 감복), 주저함(эргэлзэж тээнэгэлзэх 주춤, 망설임), 기뻐함(баярлаж багдах 고마워함), 두려워함(айн эмээх 무서워함, 겁냄, 놀람), 경악함(очин сандрах 놀람, 당황함), 화냄(уурлаж хилэгнэх 분노함, 격노함, 노여워함), 싫어함(дургүйцэж жигших 미워함, 증오함, 혐오함) 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몽골어에서 비정형문은 1) 느낌, 감각의 의미(мэдрэх утгатай): Паах, Халхай халхай, 2) 동사의 의미(зөвших утгатай): Тийм, Биш, 3) 표현의 의미(илэрхийлэх утгатай): Эвий, Ээ чааваас 4) 태도의 의미(хандах утгатай): Хүүе, Зуу зуу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의 상태를 표현한다. 그렇지만 일부의 비정형문은 감탄문의 의미에 힘을 더해 그 의미를 더욱 증가시키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¹⁸⁾

16) М.Базаррагчаа · О.Самбуудорж · Б.Мөнгөнцэцэг · Л.Цэрэнчимэд, *op. cit.*, 2022, p.175.

17) 이에 대한 예로써 “Аянга цахилгаан цахиж байхад төмөр хувин бариад усанд явж болдог юм уу? (천둥 번개가 칠 때 양철 양동이를 가지고 물 길으러 가도 됩니까?)”라고 한다면, 얼핏 의문문인 듯하지만, 천둥 번개가 칠 때 양철 양동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쇠(금속) 단추가 붙어있는 옷을 입지 말 것을, 키 큰 나무에 몸을 피해서 있지 말 것을 상기 시키며 주의시키고(경고하고) 있으므로, 이 문장은 ‘Аянга цахилгаан цахиж байхад төмөр хувин барьж явж болохгүй, (천둥 번개가 칠 때 양철 양동이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주지시키거나 경고하는 의미를 나타낸다.”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8) 이러한 언급에 대해 “Паах, Пээх, Пөөх”라는 비정형문을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감각, 감정, 느낌의 특징을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이는 어떤 불편함에 대한 정보를 맞이하는 기능으로 사용한다. 한편, 감탄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현대몽골어의 감탄문은 일반적으로 화자의 어떤 다양한 감정이나 느낌을 특별하고 독특한 억양, 어조와 함께 다양한 색채와 의미로 표현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즉, 화자의 ‘감탄(탄복, 감복, ……), 주저함(주춤함, 망설임, ……), 좋아함(기뻐함, 즐거워함, 고마워함, ……), 무서워함(두려워함, 겁냄, ……), 놀람(충격받음, 경악함, 당혹스러움, 당황함, 기겁함, ……), 싫어함(미워함, 불만스러워함, 증오함, 혐오함, 역겨워함, 질색함, 경멸함, 귀찮아함, 짜증냄, ……), 화냄(분노함, 격노함, 노여워함, 언짢아함, ……), 두려워함(꺼림, ……), 비난함(나무람, 질책함, 책망함, 혐오함, ……), 주의시킴(경고함, …)’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색채의 감정, 느낌을 표현한다.

(1) 문말 억양/어조 사용(느낌표 사용)

가. Энд могой байна. (평서문) (*예문의 밑줄과 굵은 글씨체는 필자)

① 여기에 뱀이 있습니다. {-어요, °-(으)오, -소, -네, -어, -(ㄴ/는)다, ……}19)

나. Энд могой байна! (평서형 감탄문)

① 여기에 뱀이 있군요!(있네요!) {-(-는)구려, -(-는)구먼, -(-는)군, -네, -(-는)구나, ……}20)

다. Хичээлээ давтаач. (명령문)

① 수업을 복습하세요. {-(-으)십시오, -어요/아요, -어/아, -지, -게, -어라/아라, ……}21)

라. Хичээлээ давтаачээ! (명령형 감탄문)

① 수업을 °복습하는군요! {°(-는)구려, °(-는)구먼, °(-는)군, °(-는)구나, ……}

(*①과 같은 의미는 주로 평서형 감탄문, 침사 감탄문에서 가능함)

② 수업을 복습하세요! {-(-으)십시오, -어요/아요, -어/아, -지, -게, -어라/아라, ……}

(*명령형 감탄문에서는 ‘명령’의 의미보다 ‘주의, 경고, 비난, 질책, 화냄, ……’ 등의 감

문의 구성요소에도 포함되어 그 문장의 앞에 사용하게 되면 기뻐함이나 아니면 미워함, 싫어함 같은 주요 생각은 정형문으로 표현하고, Паах, Пээх, Пөөх라는 감각, 감정, 느낌의 문장은 해당 감정을 지지, 지원하거나 그 의미에 힘을 더해 증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예를 들어, Паах는 싫어함(미워함, 혐오함, 증오함, ……) 등의 생각을, Пээх는 놀라움이거나 아니면 단지 주의, 관심을 끄는 기능 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Пээх, яасан сайхан юм бэ, Пээх, яасан муухай юм бэ’라고 하는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는 문장의 그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힘을 더해 그 의미를 더욱 증가시키는 기능을 갖고 사용된 것이다.”라고 하며 일부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19) 몽골어 평서문의 종결 형태에 대한 한국어 평서문 종결어미의 대응 예는 ‘습니다/-ㅁ니다/, ‘-어요’, ‘-(으)오’, ‘-소’, ‘-네’, ‘-어’, ‘-(ㄴ/는)다’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김기성, 『한·몽 양국 언어 학습자를 위한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평서문 대조 연구』, 『東洋學』 92,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023, 75쪽).
- 20) 흔히 격식체, 비격식체를 혼합하여 높임 단계를 얘기할 때 ‘하십시오체(아주높임, 극존칭) > 해요체(두루높임) > 하오체(예사높임) > 하계체(예사낮춤) > 해체(두루낮춤) > 해라체(아주낮춤)’ 식으로 순서를 매기기도 하므로(이관규,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집문당, 2005, 284쪽) 한국어의 감탄문 종결어미는 ‘없음’(하십시오체: 아주높임, 극존칭) > ‘(-는)군요’(해요체: 두루높임) > ‘(-는)구려’(하오체: 예사높임, 존칭) > ‘(-는)구먼’(하계체: 예사낮춤) > ‘(-는)군’(해체/반말체: 두루낮춤) > ‘(-는)구나’(해라체: 아주낮춤) 순서로 높임 단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몽골어 감탄문의 종결 형태에 대한 한국어 종결어미의 대응 예는 각 높임 단계의 가장 대표적 형태인 ‘∅(없음)’, ‘(-는)군요’, ‘(-는)구려’, ‘(-는)구먼’, ‘(-는)군’, ‘(-는)구나’ 순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십시오체는 감탄형 종결어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이들 외에도 감탄 의미를 지닌 ‘-네’, ‘-네요’, ‘-지’, ‘-지요’ 등과 같은 범용적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때도 많으므로, 때때로 해요체의 ‘(-는)군요와 함께 ‘-네요’, ‘-지요’ 등을, 해체(반말체)의 ‘(-는)군과 함께 ‘-네’, ‘-지’ 등도 함께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1) 몽골어 명령문의 종결 형태에 대한 한국어 명령문 종결어미의 대응 예는 ‘-(으)십시오, -어요/아요, -(으)세요, -어/아, -지, -게, -어라/아라, ……’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김기성,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양 언어 학습자를 위한 명령문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85, 二重言語學會, 2021a, 7쪽).

탄 의미가 주로 나타남)

(2) 서술어 반복 사용(느낌표 사용)

ㄱ. **Бат явсаан явсан!** (서술어 반복 사용 감탄문)

- ① 바트가 **갔군요!** {-(-는)구려, -(-는)구면, -(-는)군, -(-는)구나, ……} **갔어요!**
(*①과 같은 의미는 감탄이나 놀라움의 의미를 더욱 증가시키는 일반적인 의미)
- ② 바트가 **갔다니까(요) 갔다고(요)!**
(*②와 같은 의미는 화자가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기 말을 강조하는 의미. 따라서 이때에는 어조, 억양, 문맥 등의 상황에 따라 ‘귀찮아함, 짜증냄, 불만스러워함, ……’ 등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음)

(3) 감탄사, 호칭어 사용(느낌표 사용)

ㄴ. **Э чааваас, бас тусгүй юм хийжээ!** (감탄사 감탄문, 평서형 감탄문)

- ① 이런 계기랄(거참, ……), 또 쓸데없는 짓을 **했군요!** {-(-는)구려, -(-는)구면, -(-는)군, -(-는)구나, ……}

ㄷ. **Нөхдөө! ажлаа түргэн дуусгая!** (호칭어 감탄문, 명령·청유형 감탄문)

- ① **동지들!** 일을 서둘러 **끝내는군요!** {*(-(는)구려, *-(는)구면, *-(는)군, *-(는)구나, ……}
(*①과 같은 의미는 주로 평서형 감탄문, 첩사 감탄문에서 가능함)
- ② **동지들!** 일을 서둘러 **끝내십시오!** {-(-으)세요, -(-어)요/아요, -(-지)요, -(-어)아, -(-지), -(-세), -(-자), ……}22)
(*명령형(명령·청유형) 감탄문에서는 ‘주의, 경고, 질책, 화냄, 당혹, 독려, ……’ 등의 감탄 의미가 주로 나타남)

(4) 의문사 사용(느낌표 사용)

ㄹ. **Миний дүү хэзээ ийм болж чадах вэ!** (의문사 감탄문)

- ① 내 동생이(은) **언제** 이렇게 될 수 **있군요!** {*(-(는)구려, *-(는)구면, *-(는)군, *-(는)구나, ……}(*한국어 감탄형 어미로 대응 불가능)
- ② 내 동생이(은)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요, -(-이)니, -(-어), -(-는가(-니까)), -(-냐(-느냐, -냐), -(-ㄷ)까……}23)
(*의문사 감탄문에서는 ‘질문, 의문’ 등의 의미보다 ‘불만스러움, 놀라움, 부러움, ……’ 등의 의미가 주로 나타남)

(5) 첩사(수식사, 양태 첩사) 사용 (느낌표 사용)

ㅁ. **Машин ирлээ шүү!** (첩사 감탄문)

- ① 차가(는) **왔군요!** {-(-는)구려, -(-는)구면, -(-네)요, -(-아)요/어요, -(-는)군, -(-네), -(-는)구나, ……}

22) 몽골어 청유문(명령문, 명령·청유형)의 종결 형태에 대한 한국어 청유문 종결어미의 대응 예는 ‘(-으)십시오, (-으)세요, (-어)요/아요, -(-지)요, -(-어)아, -(-지), -(-세), -(-자), ……’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김기성,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양 언어 학습자를 위한 청유문 대조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8: 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1b, 11쪽).

23) 몽골어 의문문의 종결 형태에 대한 한국어 의문문 종결어미의 대응 예는 ‘-습니까(-니까)?, -입니까?, -(-어)요?, -(-이)니?, -(-어)?, -(-는가(-니까)?, -(-냐(-느냐, -냐)?, ……’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강남욱·김기성,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의문문 대조 연구』, 『몽골학』 60, 한국몽골학회, 2021, 7쪽).

ㄷ. Мөн сайн болж байна **даа!** (참사 감탄문)

- ① 역시 잘 되고 **있군요!** {-(는)구려, -(는)구먼, -네요, -아요/어요, -(는)군, -네, -(는)구나, ……}

현대몽골어의 감탄문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통 평서문, 명령문(명령·청유문), 의문문 할 것 없이 해당 문장의 끝 단어 음절을 독특한 억양과 어조로 높고 길게 발음하며 끝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예문 1. ㄱ, ㄴ, ㄷ, ㄹ). 이 외에도 특정 문장 끝의 종결 서술어를 반복해 사용한다거나(예문 2. ㄴ), 또는 문장 앞에 감탄사나 호칭어를 사용하면서(예문 3. ㄴ, ㄷ) 감탄문을 만들기도 한다. 또한 문장의 어느 위치에서든지 의문사를 사용하여 감탄문을 만들 수도 있으며(예문 4. ㄴ), 특정 문장의 종결형 뒤에 참사(수식사, 양태 참사)를 따로 띄어 써 감탄문을 만들기도 한다(예문 5. ㄷ, ㄹ). 따라서 몽골어의 감탄문은 기쁨, 슬픔, 경애, 칭찬, 감사, 놀람 등과 같은 화자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명령문 또는 각종 문장의 전, 후 문맥에 따라선 ‘주의, 경고, 우려, 비난, 질책, 화냄, ……’(명령형 감탄문, 예문 1. ㄹ), ‘주의, 경고, 질책, 화냄, 당혹, 독려, ……’(명령·청유형 감탄문, 예문 3. ㄷ), ‘불만스러움, 놀라움, 부러움, ……’(의문사 감탄문, 예문 4. ㄴ) 등의 감정도 나타낸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는 ‘-(는)군요, -(는)구먼요, -아요/어요, -지요, -(는)구려, -(는)구먼, -(는)군, -아/어, -지, -(는)구나, -아라/어라, ……’ 등과 같은 다양한 감탄형 종결어미를 상대높임법 체계에 따라 주로 사용한다.

여러 연구자마다 현대몽골어 감탄문에 대한 구성 및 유형을 특별히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필자는 본 연구에서 감탄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본 결과, 현대몽골어 감탄문의 유형을 논리적으로 아래의 <표 2>처럼 정리,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2> 현대몽골어의 감탄문 구성 및 유형

	구성	분포 위치	유형, 종류	용례
1	문말 억양/ 어조 사용 (느낌표 사용)	문장 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말 억양/어조 감탄문 - 평서형 감탄문 - 명령·청유형 감탄문 - 의문형 감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서문, 명령·청유문, 일반 의문문의 문말 억양, 어조를 높고 길게 발음함 ■ 느낌표를 붙임 (*전후 문맥 등의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 의문형 감탄문의 경우, 문어에서 물음표와 느낌표를 문장 끝에 ‘?!’와 같이 함께 쓰는 때도 있음
2	서술어 반복 사용 (느낌표 사용)	문장 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어 반복 감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 서술어를 반복해 사용함 ■ 문말 억양, 어조를 높고 길게 발음함 ■ 느낌표를 붙임 (*전후 문맥 등의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3	감탄사, 호칭어 사용 (느낌표 사용)	문장 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탄사, 호칭어 감탄문 - 감탄사 감탄문 - 호칭어 감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앞에 감탄사, 호칭어를 사용함 ■ 문말 억양, 어조를 높고 길게 발음함 ■ 느낌표를 붙임 (*전후 문맥 등의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4	의문사 사용 (느낌표 사용)	문장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문사 감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문말 억양, 어조를 높고 길게 발음함 ■ 의문사의 위치는 수의적임

	구성	분포 위치	유형, 종류	용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을 붙임 (*전후 문맥 등의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의문문 형태이지만 느낌을 사용 ■ 문어에서 물음표와 느낌을 문장 끝에 '?!'와 같이 함께 쓰는 때도 있음
5	침사(양태 침사) 사용 (느낌표 사용)	문장 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사(양태 침사) 감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종결형 뒤에 침사(양태 침사, 수식사)를 따로 띄어 씀. (*의문 침사 아님) ■ 문말 억양, 어조를 높고 길게 발음함 ■ 느낌을 붙임 (*전후 문맥 등의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Ⅲ.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감탄문 대조 분석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정리한 현대몽골어 감탄문의 구성 및 유형을 기준으로 이에 대응시킬 수 있는 한국어 감탄문을 서로 비교, 대조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의 경우는 감탄문을 인정하는 견해를 따르기로 하며, 이번 연구에서는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문장 종결 형태에 우선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지만, 물론 상황에 따라선 서로 간의 적절한 대응 예에 따른 포괄적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러한 비교, 대조에 따라 양 언어 감탄문의 단순 종결 형태뿐만 아니라 일부 감탄문 문장 전체에 대한 유형적 특징 및 서로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쁨, 슬픔, 경애, 칭찬, 감사, 놀람, ……’ 등과 같은 매우 다채로운 화자 자신의 느낌, 감정뿐만 아니라 ‘주의, 경고, 우려, 질책, 훈계, 화냄, 짜증냄, 불만스러움, 귀찮음, ……’ 등의 주의, 경고성 의미까지도 나타내는 현대몽골어의 ‘문말 억양/어조 감탄문’, ‘서술어 반복 감탄문’, ‘감탄사, 호칭어 감탄문’, ‘의문사 감탄문’, ‘침사(양태 침사) 감탄문’을 기준으로 삼고(*〈표 2〉 유형, 종류 부분 참조), 한국어의 감탄형 종결어미 감탄문을 그 주요 비교, 대조 대상으로 한다.²⁴⁾ 일부 감탄형 종결어미의 상대높임 체계는 대체로 아래의 〈표 3〉과 같이 정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감탄문의 감탄형 종결어미도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등과 마찬가지로 화자와 청자 간의 상대높임(상대높임법) 체계에 따라 여러 어미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일부 어미들은 감탄문뿐만 아니라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등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학자, 연구자마다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분류, 체계화하고 있다.

24) 여러 학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요 구성성분을 기준으로 한국어의 감탄문 구성과 그 유형은 대체로 1) 억양/어조 감탄문(억양/어조 사용-서술형 감탄문, 명령형 감탄문, 청유형 감탄문, 의문형 감탄문), 2) 감탄사 감탄문(감탄사 사용), 3) 감탄형 종결어미 감탄문(감탄형 종결어미 사용), 4) 정도부사 감탄문(정도부사 사용)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감탄형 종결어미의 대응 예를 통해 몽골어 감탄문과 서로 대조한다.

〈표 3〉 한국어 감탄형 종결어미 감탄문의 종결어미 상대높임 체계(격식체와 비격식체 혼합)

구분	유형 (동사 어간 + 감탄형 종결어미)	주요 의미 및 용례 ²⁵⁾	
감탄형 종결어미 감탄문	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없음)²⁶⁾ (아주높임: 하십시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알게 된 사실을 영탄적으로 말할 때 사용됨 ('-구' 계열의 어미들) ■ 새로 지각한 일을 말할 때 사용, 놀라움이나 감탄의 의미가 나타남 ■ 고유의 감탄형 어미는 '-구' 계열의 어미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음 ■ 해요체의 '-아요/어요, -지요, -네요'는 해체 또는 반말체 '-아/어, -지, -네'에 '요'를 붙인 형태. 이들은 감탄형 고유의 어미가 아니며 범용적으로 사용됨 ■ '-(는)군', '-아라/어라' 등은 청자를 거의 의식하지 않은 표현 등에 사용되는 반면, '-구나'는 청자를 의식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사용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군요, -(는)구먼요, -아요/어요,²⁷⁾ -지요, -네요, …… (두루높임: 해요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구려, …… (예사높임: 하오체) 	
	비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구먼, …… (예사낮춤: 하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군,²⁸⁾ -아/어, -지, -네,²⁹⁾ …… (두루낮춤: 해체, 반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구나, '-아라/어라,³⁰⁾ …… (아주낮춤: 해라체) 	

* 참조: 김종록, 앞의 책, 2008, 269쪽; 이익섭, 앞의 책, 2005, 175~180쪽;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 앞의 책, 2018, 487쪽; 한 길, 앞의 책, 1991, 68쪽. 윤석민, 앞의 책, 2000, 125~140쪽.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연구는 양 언어의 감탄문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몽골어 감탄문이라고 볼 수 있는 유형에 대응이 가능한 한국어 감탄문과의 비교, 대조가 주목적이다. 특히 감탄형 종결어미의 대응 양상을 살피며, 감탄형 종결어미 감탄문에 우선하여 대조해 보기로 한다.

- 25) 주요 의미 및 용례 부분의 내용은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 (2018)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과 이익섭(2005)을 참조해 정리하였다. 개별적인 어미의 특징과 의미를 따로 살펴 봄에 있던 해당 어미에 직접 주석을 달며 살펴보기로 한다(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 앞의 책, 2018, 487쪽; 이익섭, 앞의 책, 2005, 175~180쪽).
- 26) 상대높임의 높임 정도는 학자 저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권재일(1992)에서 “노대규(1983)의 기술에 따르면, 감탄법을 서술법의 하위분류에 들어가는 한 종류로 보면서 감탄어미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아주높임: -군요 (2) 예사높임: -구려 (3) 예사낮춤: -구먼, -군 (4) 아주낮춤: -구나, -아라.”와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군요’를 아주높임 등급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권재일,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1992, 94쪽). 한편, 서정수(1996)는 “감탄 서술형에는 아주낮춤의 ‘구나’와 반말 형태 ‘군/구려’ 및 두루높임의 ‘군요/구료’가 있을 뿐이고 예사낮춤, 예사높임 그리고 아주높임의 형태는 없다”와 같이 언급하고 있으므로 학자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없는 것으로 여겨 제외하기로 한다(서정수,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6, 339쪽).
- 27) 두루높임의 ‘-어요/아요’, 두루낮춤의 ‘-어/아’ 등의 어미는 문맥의 상황 또는 화자의 발화 상황 등에 따라 감탄문의 종결어미 뿐만 아니라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모두에 사용되는 범용적 어미라는 특징이 있다. 대체로 감탄형 고유의 어미는 ‘-구’ 계열의 어미들로 보고 있다.
- 28) ‘-(는)군’의 의미를 한 길(1991)은 ‘새로이 깨달음’으로 정리하였으며, ‘말할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나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깨닫는 상황에서 쓰임’과 같이 화용적 용법상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한 길, 앞의 책, 1991, 94쪽).
- 29) ‘-네’에 대해서 한 길(1991)에서는 “반말의 {-네}는 ‘말할이가 들을이를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서술’하는 의미 ……”라며 서술법 어미로 설명하고 있고, 이익섭(2005)은 “-군과 마찬가지로 새로 지각한 사실을 놀라움이나 감탄을 섞어 혼잣말로 할 때 쓰인다”와 같이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감탄형 종결어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는)군’, ‘-아라/어라’, ‘-네’, ‘-네요’ 등은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 느낌 등을 표현하는 어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한 길, 앞의 책, 1991, 68쪽; 이익섭, 앞의 책, 2005, 179쪽).
- 30) ‘-아라/어라’는 명령형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감탄형 종결어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주로 형용사와 결합할 때 실현한다.

1. '문말 억양/어조 사용 감탄문'과의 대조 분석

이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현대몽골어의 '문말 억양/어조 감탄문'이란 표면적으로는 평서문, 명령문(명령·청유문),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주로 문말 종결어미 음절에 독특한 억양, 어조를 사용해 다양한 색채의 감탄 의미를 표현하는 감탄문 문장을 말한다. 어떤 유형의 문장일지라도 문말의 억양과 어조로 감탄의 의미를 표현한다. 따라서 이는 다시 각각 '평서형 감탄문', '명령형(명령·청유형) 감탄문', '의문형 감탄문' 등으로 하위 분류가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억양, 어조뿐만 아니라 각종 언어적 상황, 전, 후 문맥 등도 함께 감탄문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문말의 억양, 어조에 더욱 초점을 둔다. 이러한 감탄문들은 문말의 억양을 높고 길게 말하며,³¹⁾ 문장의 끝에는 보편적으로 감탄문임을 명료하게 알릴 수 있는 느낌표(!)를 쓰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단편적으로는 의문형 문장을 제외한 어떤 유형의 문장이라도 일단 문장 끝에 느낌표가 있다면 우선 감탄문임을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의문형 감탄문의 경우, 보통 의문 첨사와 물음표(?)를 붙인 의문문으로 구성됨으로 이때에는 따로 느낌표를 또 사용하지는 않는다. 한편, 여기에 비교, 대조의 대상이 될 한국어 감탄문은 다양한 상대높임 체계를 지닌 감탄형 종결어미 감탄문이 주요 대상이다. 일부 예문의 경우, 앞부분에서 예로 들었던 문장을 다시 활용하기로 한다.

(6) 가. Дорж явсан. (평서문) (*예문의 밑줄과 굵은 글씨체 표시는 필자)

① 더르지는(가) 갔습니다. {-어요, *-(으)오, -소, -네, -어, -(ㄴ/는)다, ……}

나. Дорж явсаан!³²⁾ (평서형 감탄문)

① 더르지는(가) 갔군요!(갔네요!) {-(는)구려, -(는)구면, -(는)군, -네, -(는)구나, ……}

다. Хичээлээ давтаач. (명령문)

① 수업을 복습하세요. {--(으)십시오, -어요/아요, -어/아, -지, -계, -어라/아라, ……}³³⁾

라. Хичээлээ давтаачээ!³⁴⁾ (명령형 감탄문)

① 수업을 *복습하는군요! {--(는)구려, *-(는)구면, *-(는)군, *네, *-(는)구나, ……}

(*①과 같은 의미는 평서형 감탄문, 첨사 감탄문에서 주로 가능)

② 수업을 복습하세요! {--(으)십시오, -어요/아요, -어/아, -지, -계, -어라/아라, ……}

(*명령형 감탄문에서는 일반적인 명령의 의미보다 '주의, 경고, 비난, 질책, 화냄, ……' 등의 의미가 주로 나타남)

31) 다른 유형의 문장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몽골어 감탄문의 억양, 어조 부분에서도 다양한 음성학적 연구 방법 등을 활용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단편적으로 높고 길게 말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더욱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는 조민하(2019) 등에서 음성학적 방법 등을 활용한 감탄문의 억양을 다루고 있다(조민하, 앞의 논문, 2019, 57~83쪽).

32) Ш.Лувсанвандан, *op. cit.*, 1956, pp.4-5.

33) 몽골어 명령문의 종결 형태에 대한 한국어 명령문 종결어미의 대응 예는 '-(으)십시오, -어요/아요, -(으)세요, -어/아, -지, -계, -어라/아라, ……'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김기성,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양 언어 학습자를 위한 명령문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85, 二重言語學會, 2021a, 7쪽).

34) Ж.Төмөрцэрэн, *op. cit.*, 1966, p.243.

ㄹ. Та яваад ирэв үү? (의문문)

- ① 당신 다녀오셨어요? {-습니까(-하니까), *-입니까, *(이)니, *-어, *-는가(-나가), *-느냐 (-으냐, -냐), ……}

ㅁ. Та яваад ирэв үү?³⁵⁾ (의문형 감탄문)

- ① 당신이(은) 다녀오셨군요? {-(-는)구려, ?(-는)구먼, ?(-는)군, ?-네, ?(-는)구나, ……}
(*의문형 감탄문에서는 일반적인 질문의 의미보다 ‘불만스러움, 놀라움, 부러움, ……’ 등의 의미가 주로 나타남)

위 문장에서 예문(6. ㄴ. ㄹ. ㅁ)은 문말 종결어미의 음절을 길고 높은 독특한 억양, 어조로 말하는 몽골어 문말 억양/어조 감탄문의 한 예이다. 즉, 화자 자신의 어떤 기쁨, 즐거움, 고마움(감사), 놀람, 두려움, 불만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색채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며, 각각 평서형 감탄문(6. ㄴ), 명령형 감탄문(6. ㄹ), 의문형 감탄문(6. ㅁ)을 나타낸다.

한편, 몽골어 감탄문에서는 문말의 끝음절이 단모음 등으로 오게 되면 이를 장모음처럼 길고 높게 발음한 다거나, 또는 장모음이 오게 되면 그보다 더 지나칠 정도로 길고 높게 발음하므로 예문(6. ㄴ), (6. ㄹ)에서 처럼 간혹 비문법적, 비규범적 형태로 끝음절 모음을 길게 적어 표현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다. 주로 문학 작품과 같은 글 속에서 구어체를 표현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해당 문장이 감탄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문장 끝에 주로 느낌표(!)를 쓴다. 하지만 규범적 글에서는 문장 끝의 느낌표 사용을 제외하곤 보통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 즉, 문말 종결어미의 단모음을 임의로 바꿔 장모음으로 쓰지는 않는다. 따라서 평서문의(6. ㄴ), 명령문의(6. ㄹ)도 문어체에서 문장 끝에 느낌표(!)를 붙이게 되면 감탄문임을 알릴 수 있다. 하지만 억양의 경우는 규범적 문어체로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록 문학 작품 속에서의 대화체 같은 예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6. ㄴ), (6. ㄹ)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한국어 감탄형 종결어미가 쓰인 예문(6. ㄴ.①)과(6. ㅁ.①)은 해당 감탄 의미로써의 대응이 비교적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6. ㄹ.①)은 대응되지 않고 뭔가 어색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몽골어 예문(6. ㄹ)은 명령형 감탄문이라 이 문장, 문맥에서는(6. ㄹ.①)과 같은 평서형 감탄문 같은 감탄(탄복, 기쁨, 놀라움, ……)의 의미는 나오지 않으며, 그 대신(6. ㄹ.②)와 같은 감탄(주의, 경고, 비난, 질책, 화냄, ……)의 의미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령형 감탄문은 한국어의 감탄형 종결어미로는 대응시키기가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명령형 종결어미로써의 대응이 더한층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일반적인 명령의 의미라기보다는 화자가 청자에게 ‘주의, 경고, 비난, 질책, 화냄, 불만스러움, …’ 등의 감정을 나타내면서 주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명령형 감탄문은 주의, 경고, 질책, 비난, 화냄, 불만 등의 의미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한국어의 ‘-(는)군요, -(는)구나, ……’ 등의 감탄형 어미는 몽골어가 평서형 감탄문일 경우에만 대응이 아주 자연스럽다.

예문(6. ㅁ)은 의문형 감탄문의 예인데, 일반적인 의문문인 예문(6. ㄹ)의 형태와 다르지 않다. 전후 문맥

35) Цэндсүрэнгийн Тэрбиш, *op. cit.*, 1994, p.155.

등과 어울려 문말의 억양과 어조로 감탄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문장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구어체에서는 억양과 어조로, 문어체에서는 전후 문맥에 따라 해당 문장의 감탄 의미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문어 상으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때때로 물음표 대신 느낌표만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설명할 ‘의문사 감탄문’의 일부 예에서처럼 비규범적이지만 물음표 뒤에 느낌표를 함께 적어 ‘?!’와 같이 표기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어디까지나 정서법상으로는 어긋나는 표기이다.

의문형 감탄문으로서의 예문(6. ㅂ)은 의문문(6. ㄱ. ①)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질문, 의문의 의미라기보다는 ‘불만스러움, 놀라움, 부러움, ……’ 등의 다양한 감탄의 의미를 표현한다. 물론 이러한 의미는 문말의 억양과 어조뿐만 아니라 전후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 감탄형 종결어미로의 대응은 문맥 상황의 상대높임 등급에 따라 적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몽골어의 감탄문과 한국어의 감탄문이 대체로 문장의 끝음절을 독특한 억양과 어조로 말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문장 종결 형태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현대몽골어에서 ‘문말 억양/어조 감탄문’이라 할 수 있는 평서형 감탄문, 명령형(명령·청유형) 감탄문, 의문형 감탄문 등은 유형별로 저마다 종결어미가 따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는 반면, 한국어의 감탄문은 대부분 ‘-(는)군요, -(는)구려, -(는)구면, -(는)군, -(는)구나, ……’ 등과 같은 ‘-구’ 계열의 별도의 감탄형 종결어미로 문장을 끝맺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감탄문의 주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서술어 반복 감탄문’과의 대조 분석

이 연구에서 말하는 현대몽골어의 ‘서술어 반복 감탄문’이란 말 그대로 특정 문장 뒤에서 종결 서술어를 반복 사용해 각종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말한다. 형태적으로 종결 서술어를 반복해 사용하며, 역시 종결어미는 길고 높게 말한다. 평서형 감탄문의 경우 문장 끝은 느낌표를 붙인다.

(7) ㄱ. Бат явсаан явсан!³⁶⁾ (서술어 반복 감탄문) (*예문의 밑줄과 굵은 글씨체 표시는 필자)

① 바트가 갔군요(갔네요) {-(는)구려, -(는)구면, -(는)군, -네, -(는)구나, ……} 갔어요!

② 바트가 갔네 {-(는)구려, -(는)구면, -(는)군, -(는)구나, ……} 갔어!

③ 바트가 갔다니까 갔다고!

위의 예문(7. ㄱ)을 살펴보면, 반복해 사용하고 있는 서술어 중 앞에 있는 서술어를 장모음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는 종결어미로 사용하고 있는 한정연결어미 ‘-сан⁴⁾’을 길게 발음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마치 장모음인 것처럼 ‘-саан⁴⁾’로 적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역시 비규범적인 사용이며, 문학 작품과 같은 글 속에서나 구어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형태이다. 이런 경우 해당 문장은 역시 다양한 감탄의 의미를 나타낼 수

36) Ш.Лувсанвандан, *op. cit.*, 1956, pp.4~5.

있다. 하지만, 억양과 어조만 가지고는 단지 해당 문장이 감탄문인 것을 알리는 역할만 할 뿐이지 직접적인 다양한 감탄의 의미는 전후 문맥 등의 화용적 요소에서 파악된다. 따라서 전후 문장이나 주어진 조건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예문(7. ㄱ)과 같은 문장은 정확하게 어떠한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7. ㄱ①), (7. ㄱ②)처럼 한국어 감탄형 종결어미를 대응시켜 보았을 때, 크게 어색하지 않은 점을 보아서는 우선 일반적인 한국어 ‘구’ 계열 종결어미의 의미라 할 수 있는 처음 알게 된 사실 또는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감탄이나 놀라움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바트가 갔다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는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감탄이나 놀라움의 의미가 수반된다. 또한 종결 서술어를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그 감탄이나 놀라움의 의미를 더욱 증가시키는 기능과 역할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반복 형태에 한국어의 감탄형 종결어미를 대응시켜 보았을 때 역시 크게 어색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단, 해당 종결어미를 앞과 뒤에 서로 섞어 쓰는 게 비교적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따라서 현대몽골어의 ‘서술어 반복 감탄문’과 한국어 감탄형 종결어미 감탄문은 서술어를 반복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점을 보인다.

한편, 종결 서술어의 반복 사용으로 인해 그 감탄이나 놀라움의 의미가 더욱 증가함으로써 (7. ㄱ③)처럼 화자가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기 말을 힘주어 강조하는 듯한 의미, 또는 화자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청자에게 강조해 알려 주는 의미 등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어조, 억양, 문맥 등의 상황에 따라 한국어의 ‘-(는/ㄴ)다니까’, ‘-(는/ㄴ)다고’ 등의 의미가 보인다. 예를 들어 ‘Би мэдэж байна мэдэж байна!(내가 안다니까 안다고!, ……)’, ‘Тэр ирсээн ирсэн! (그가 왔다니까 왔다고!, ……)’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이는 특정 사실에 관한 확인, 강조의 의미와 더불어 동시에 ‘귀찮아함, 짜증남, 불만스러워함, ……’ 등의 의미까지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3. 감탄사, 호칭어 감탄문과의 대조 분석

이 연구에서 말하는 현대몽골어의 ‘감탄사, 호칭어 감탄문’은 특정 문장의 맨 앞에 감탄사³⁷⁾나 호칭어³⁸⁾를 사용해 다양한 색채의 감탄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의미한다. 즉, ‘감탄사 감탄문’과 ‘호칭어 감탄문’을 통칭해 표현한 것이다.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감탄사나 호칭어에 느낌표를 붙여 쓰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문말에도 일반적으로 느낌표를 붙여 쓴다. 또한 문장의 끝음절, 문장의 종결어미는 길고 높게 말한다. 물론 전후 문맥, 발화 등의 상황에 따라 감탄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때는 문장 앞의 감탄사나 호칭어, 또는 문말의 느낌표를 생략할 수도 있다.

37) 현대몽골어의 감탄사에 관한 연구로 대조 연구의 성격을 띤 연구로는 김기성(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해당 연구에서 몽골어 감탄사들의 의미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 감탄사와의 대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탄사에 대한 논의가 목적이 아니므로 간단한 소개에 그치기로 한다. 몽골어 감탄사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을 참조 바람(김기성, 앞의 논문, 2013, 223~259쪽).

38) 현대몽골어의 호칭어에 관한 연구 중에서 대조 연구의 성격을 띤 연구로는 박상택(2013)의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연구에서 한국어와 몽골어의 호칭어 유형과 특성을 비교하며, 양국 호칭어가 해당국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상호작용과 사회언어학적 구조를 반영하는 매우 중요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박상택, 앞의 논문, 2013, 49~80쪽).

- (8) ㄱ. **Пөх, энэ муухай хогийг бушуухан арилгаач!**³⁹⁾(감탄사 감탄문, 명령형 감탄문)
 ① **에이**, 이 더러운 것을 빨리 닦는**군요!** {-(는)구려, -(는)구먼, -(는)군, -네, -(는)구나, ……}
 (*①과 같은 의미는 평서형 감탄문, 침사 감탄문에서 주로 가능)
 ② **에이**, 이 더러운 것을 (좀) 빨리 닦**아요!** {-(으)십시오, -(으)세요, -어/아, -지, -게, -어라/아라, ……}
 (*명령형 감탄문에서는 일반적 ‘명령, 권고’ 등의 의미보다 ‘주의, 경고, 비난, 질책, 화냄, ……’ 등의 의미가 주로 나타남)
- ㄴ. **Оюунууд аа!** ногоогоо бушуухан хураацаа**я!**⁴⁰⁾(호칭어 감탄문, 명령·청유형 감탄문)
 ① **학생들!** 채소를 빨리 수확**하는군요!** {-(는)구려, -(는)구먼, -(는)군, -(는)구나, ……}
 (*①과 같은 의미는 평서형 감탄문, 침사 감탄문에서 주로 가능)
 ② **학생들!** 채소를 빨리 수확**합시다!** {-(으)세요, -어요/아요, -지요, -어/아, -지, -세, -자, ……}
 (*명령형(명령·청유형) 감탄문에서는 일반적 ‘요청, 제안’ 등의 의미보다 ‘주의, 경고, 질책, 화냄, 당혹, 독려, ……’ 등의 의미가 주로 나타남)

위의 예문(8)을 살펴보면 (8. ㄱ)은 감탄사 감탄문과 명령형 감탄문을, (8. ㄴ)은 호칭어 감탄문과 명령·청유형 감탄문의 모습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문장의 맨 앞에 감탄사나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장의 종결어미는 명령문이거나 청유문(명령·청유문)을 구성하는 2인칭 종결어미 ‘-аач⁴⁾’와 1인칭 종결어미 ‘-я’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감탄사나 호칭어가 함께 출현하는 경우, 이러한 문장은 각 문장의 종결어미가 나타내고 있는 문장의 성격, 의미와 더불어 감탄문임을 알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물론, 문장 끝의 억양과 어조, 문장 끝에 사용되는 느낌표 등도 함께 작용한다. 다만, 어떠한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문장인가에 따라 우선 해당 문장의 1차적 기본 의미가 형성되며, 그 정보, 바탕 위에 감탄사나 호칭어의 기능과 의미가 화자의 각종 느낌이나 감정에 실려 감탄문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8. ㄱ), (8. ㄴ)과 같은 몽골어의 명령형, 명령·청유형 감탄문은 (8. ㄱ①), (8. ㄴ①)처럼 일반적으로 평서문과 부합하는 한국어의 감탄형 종결어미 감탄문으로는 잘 대응되지 않는다. (8. ㄱ①), (8. ㄴ①)과 같은 한국어 감탄문의 의미는 몽골어에서는 주로 앞에서 서술한 ‘평서형 감탄문’이나, 뒤에 서술할 ‘침사 감탄문’에서 주로 나타난다.

정리해 보자면, 현대몽골어의 특정 문장 앞에 감탄사나 호칭어가 사용된 ‘감탄사, 호칭어 감탄문’은 문말 형태가 평서형의 경우, 한국어의 감탄형 종결어미 사용 감탄문과 대응할 수 있지만, 문말 형태가 명령형이거나 명령·청유형(청유형)일 경우는 쉽게 대응할 수 없음을 살필 수 있었다. 즉, 해당 명령문과 명령·청유문(청유문)의 의미와 특성을 바탕으로, 그 위에 감탄사나 호칭어의 기능이 어우러져 다양한 색채의 감탄 의미

39) Ш.Барайшир, *op. cit.*, 1989, p.194.

40) Ш.Барайшир, *op. cit.*, 1989, p.194.

를 나타내게 된다. 다만, 명령형 감탄문의 경우는 명령문이 갖는 ‘명령, 권유(권고), ……’ 등의 기본 의미는 약화 되면서, 그보다 ‘주의, 경고, 비난, 질책, 화냄, ……’ 등의 다양한 감탄 의미가 주로 나타난다. 즉, 명령형 종결어미의 의미와 감탄사의 역할에 따라 이것이 주의, 경고성 의미로 바뀐다고 볼 수 있다. 감탄사의 기능과 역할로 화자가 대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우선 표현하면서 그다음 문장으로써 주의, 경고성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이다. 또한 명령·청유형(청유형) 감탄문의 경우는 청유문이 갖는 ‘요구, 요청, 제안, 의지(의도), ……’ 등의 기본 의미는 약화 되면서, 그보다 ‘주의, 경고, 질책, 화냄, 당혹, 독려, ……’ 등의 다양한 감탄 의미가 주로 나타난다.

4. ‘의문사 감탄문’과의 대조 분석

이 연구에서 말하는 현대몽골어의 ‘의문사 감탄문’은 문장 내의 자유로운 위치에서 특정 의문사를 사용해 다양한 색채의 감탄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의미한다.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내용은 감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물음표(?)를 사용해 문장을 마칠 수도 있지만,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사용하는 때도 많다. 역시 비규범적이긴 하지만, 문학 작품의 대화체 글 속에서는 ‘?!’와 같이 함께 사용하는 모습도 간혹 볼 수 있다. 몽골어의 의문사 감탄문은 부분적으로 ‘수사의문문(яруу асуух өгүүлбэ)⁴¹⁾과 ‘질문-주의환기문/주의환기 의문문/(асуун-анхааруулсан өгүүлбэр)⁴²⁾의 의미가 나타나기도 한다.

(9) ㄱ. **Яасан сайхан өдөр вэ!**⁴³⁾ (의문사 감탄문)

- ① **얼마나** 멋진(아름다운, 좋은, ……) **날이십니까!** {-입니까, -(어)요, -(이)니, -어, -는가 (-는가), -느냐(-으냐, -냐), ……}

(*이와 같은 의문사 감탄문에서는 ‘질문, 의문, ……’ 등의 본래 의미보다 ‘탄복, 좋아함, 부러움, ……’ 등의 감탄 의미가 주로 나타남)
- ② **정말** 멋진(아름다운, 좋은, ……) ***날이십니까!** {*-입니까, *(어)요, *(이)니, *-어, *는가 (-나 가), *-느냐(-으냐, -냐), ……}

(*몽골어가 전하는 원래 의미가 아닌 전혀 다른 의미의 감탄문이 되는 이유로 * 표시함)
- ③ **얼마나** 멋진(아름다운, 좋은, ……) ***날이로군요!** {*(-(는)구려, *(는)구먼, *(는)군, *(는)구나, ……}

41) “수사의문문은 긍정,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화자의 심성 상태(마음의 움직임)가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의 상황 및 가치관 등을 아주 특별하게(독특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문체적으로 중요한 도구가 된다(Б.Пүрэв-Очир, А.Цог-Очир, Ө.Мөнхдолгор 2012: 279-281)”(강남옥·김기성, 앞의 논문, 2021, 13쪽 재인용). 몽골어의 수사의문문은 문장 내용 중에 나타나는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강도, 상태의 정도 등을 아주 강하고 대단하게 표현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이는 곧 강한 긍정이나 강한 부정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42) 질문-주의환기문(주의환기 의문문)이란 질문과 더불어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를 지닌 의문문을 말한다. 이 명칭은 다른 한편으로는 ‘질문-경고문’이란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역시 문학 작품의 대화체 예들 속에서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쓰기도 한다. 이 의문문도 대답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어떤 행위나 사실에 대해 그 점을 강조하면서 주의를 환기한다거나, 경고하는 듯한 의미를 지닌 문장이라 할 수 있다(강남옥·김기성, 앞의 논문, 2021, 13쪽).

43) Цэндсүрэнгийн Тэрбиш, *ор. cit.*, 1994, p.155.

(*의문사의 의미를 적합한 부사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한국어 감탄형 종결어미로의 대응 여부가 결정됨)

- ④ **정말** 멋진(아름다운, 좋은, ……) 날이**로군요!** (-(-는)구려, -(-는)구먼, -(-는)군, -(-는)구나, ……)

(*의문사의 의미를 적합한 부사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한국어 감탄형 종결어미로의 대응 여부가 결정됨)

ㄴ. Миний дүү **хэзэ** ийм болж чадах **вэ!**⁴⁴⁾ (의문사 감탄문)

- ① 내 동생이(은) **언제** 이렇게 될 수 **있군요!** (-(-는)구려, -(-는)구먼, -(-는)군, -(-는)구나, ……)

(*한국어 감탄형 어미로 대응 불가능함)

- ② 내 동생이(은) **언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요, -(이)니, -어, -는가(-는가), -느냐(-으냐, -냐), -(ㄹ)까 ……)

(*이와 같은 의문사 감탄문에서는 ‘질문, 의문, ……’ 등의 본래 의미보다 ‘불만스러움, 놀라움, 부러움, ……’ 등의 감탄 의미가 주로 나타남)

위의 예문(9)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사의문문’, ‘질문-주의환기문(주의환기 의문문)’ 등과 유사한 의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Яасан(яа-)’과 같은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위치하거나, ‘хэзэ’와 같이 문장 중간에 나타나기도 한다. 의문사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어떤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더욱이 문장 끝 의문첨사 뒤에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문장은 문장의 성격, 즉 의문문의 일반적 성격보다는 해당 문장이 감탄문 성격이 더 짙다는 점을 알리게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선 그냥 물음표(?)만 사용하는 때도 있다. 하지만 의미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예문을 살펴보게 되면, (9. ㄱ)과 같은 의문사 감탄문은 의미상 수사의문문 같은 성격을 일부 갖고 있어, 먼저 (9. ㄱ①)처럼 문말 의문첨사 부분에 한국어의 의문문 종결어미를 대응시켜 봐도 크게 어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다음으로 문장 앞의 의문사 ‘Яасан(яа-)’을 원래 의미인 ‘어떻게 하다, 어찌하다’라는 의미로 대응시켜 볼 경우는, 마치 ‘어떻게 해서(어째서) 좋은 날인가요?’와 같이 원 문장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어떤 특정 대답을 요구하는 듯한 질문 성격의 의문문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문사 감탄문에서 의문사는 어떤 질문 성격을 갖는다고보다, 해당 문장에서 나타나는 동작의 강도나 상태의 정도(멋진 날, 좋은 날, ……)를 강조하는 부사(정도부사)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의문사는 ‘얼마나’와 같은 부사로 적절하게 대응되어야 자연스러워진다. 결국, (9. ㄱ)과 같은 의문사 감탄문에서는 의문사가 원래 갖고 있던 질문이나 의문의 의미는 사라지고, 대신 그 문장의 내용과 일치하여 동작의 강도나 상태의 정도 등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적절한 의미의 부사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한편, (9. ㄱ②)처럼, (9. ㄱ①)과 같은 문말 의문문 종결어미는 그대로 두고, 문장 앞 의문사만 ‘정말’과

44) Ж.Төмөрцэрэн, *op. cit.*, 1966, p243.

같은 부사로 대응했을 때, 한국어로서는 마치 수사의문문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게 되지만, 몽골어 문장(9. ㄱ)의 의미와는 문맥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문장(9. ㄱ)의 의미는 ‘너무나 멋진 날이네요!’, ‘정말 멋진 날이로군요!’와 같이 해당 상태의 정도가 매우 대단하고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몽골어의 수사의문문은 비교적 이러한 의미가 두드러져 보인다.

(9. ㄱ③)과 (9. ㄱ④)의 예시에서는 몽골어의 문장을 한국어의 감탄형 종결어미 ‘-군요’로 대응시키고, 동시에 해당 문장의 의문사를 위에서처럼 ‘얼마나’와 ‘정말로’ 일관성 있게 대응시켜 본 문장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에서는 ‘정말’이 사용된 문장이 올바른 의미를 전달하며, 반면에 ‘얼마나’가 사용된 문장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구조의 의문사 감탄문에서는 한국어에서 종결어미를 ‘-입니까’와 같은 의문문 종결어미로 사용할 때 해당 의문사는 ‘얼마나’와 같은 부사어로, ‘-군요’와 같은 감탄형 종결어미로 사용할 때 해당 의문사는 ‘정말, 무척, 대단히, 너무, ……’ 등과 같은 부사어로 대응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구조의 몽골어 문장에서는 의문사가 본래의 질문 기능을 상실하고, 대신 해당 문장 내의 동작의 강도나 상태의 정도를 강조하기 위한 적절한 의미의 부사어로 대체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로 대응시킬 때 강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얼마나 적절한 의미의 부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당 문장의 감탄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9. ㄱ)과 같은 의문사 감탄문의 적합한 한국어 감탄문 대응 예시는 (9. ㄱ①), (9. ㄱ④)로 확인된다.

(9. ㄴ)과 같은 의문사 감탄문에서는 해당 의문사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으며, 한국어 감탄형 종결어미로의 대응도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9. ㄴ①). 그 대신 (9. ㄴ②)처럼 수사의문문 성격의 대응은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내 동생은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강한 부정적 의미와 함께 발화 및 문맥 등의 상황에 따라 ‘불만스러움, 놀라움, 부러움, ……’ 등과 같은 감탄의 의미가 주로 나타난다. 또한 해당 감탄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나 사실에 대해 그 점을 강조하면서 주의를 환기한다거나, 경고하는 듯한 의미를 지닌 ‘질문-주의환기문(주의환기 의문문)’ 성격의 의미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구조의 의문사 감탄문, 즉 문장 내에서 의문사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는 감탄형 종결어미인 ‘-군요’ 등으로 대응시키기보다는 ‘-입니까’ 등과 같은 의문문 종결어미로 대응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5. ‘첨사(양태 첨사) 감탄문’과의 대조 분석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현대몽골어의 ‘첨사(양태 첨사) 감탄문’은 특정 문장의 종결 서술형 뒤에 특정 ‘양태 첨사’⁴⁵⁾를 사용하여 다양한 색채의 감탄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의미한다. 이 양태 첨사들은 독립적인 어휘

45)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현대몽골어의 양태 첨사는 주로 ‘шүү, даа⁴, даг⁴, биз, шив, бий, юм’ 등과 같은 단어들이다. 이들 양태 첨사는 독립적인 어휘 의미를 갖거나 독립된 문장성분이 될 수는 없지만, 앞에 있는 전체 문장이나 문장 내의 특정 성분과 어울려 특정한 부가 의미나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 현대몽골어의 양태 첨사에 관한 연구 중 대조 연구의 성격을 띤

의미를 지니거나 독립된 문장성분이 될 수는 없지만, 앞에 있는 전체 문장이나 문장 내의 어떤 특정 성분과 어울려 다양한 부가적 의미나 양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개별적인 양태 첨사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쇄체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상 극히 일부의 평서문 예시만을 선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0) 가. Машин ирлээ. (평서문)

① 차가(는) 왔습니다. {-어요, ^{*}-(으)오, -소, -네, -어, -(ㄴ/는)다, ……}

나. Машин ирлээ шүү! (첨사 감탄문)

① 차가(는) 왔군요! {-(-는)구려, -(는)구먼, -네요, -아요/어요, -(는)군, -네, -(는)구나, ……}

다. Мөн сайн болж байна. (평서문)

① 역시 잘 되고 있습니다. {-어요, ^{*}-(으)오, -소, -네, -어, -(ㄴ/는)다, ……}

라. Мөн сайн болж байна даа! (첨사 감탄문)

① 역시 잘 되고 있군요! {-(-는)구려, -(는)구먼, -네요, -아요/어요, -(는)군, -네, -(는)구나, ……}

위의 예문(10. 나), (10. 라)을 살펴보면, 모두 평서문 뒤에 ‘шүү’, ‘даа’와 같은 양태 첨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장의 끝에는 느낌표(!)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이러한 구조의 문장은 첨사가 연결된 감탄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보통 ‘шүү’는 ‘주의 환기’, ‘даа’는 ‘단언’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의 예문에서는 해당 의미의 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서술 의미를 갖는 평서문 뒤에 특정한 의미의 첨사를 덧붙여 사용함으로써 해당 첨사의 양태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적으로는 화자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의 의미까지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의 경우, 의미상으로 한국어의 감탄형 종결어미 ‘-군요’ 등과 잘 대응됨을 알 수 있다.

(10. 나) 예문의 경우, (10. 가) 평서문의 ‘차가 왔습니다’라는 일반적 서술 바탕 위에 ‘шүү’ 첨사가 지닌 ‘주의 환기’의 의미가 첨가됨으로써, 해당 문장은 1차적으로 ‘차가 도착했으니 서둘러라!’, ‘차가 왔는데 뭐 하는 거야!’ 등의 주의 환기 또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전후 문맥, 각종 억양, 발화 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주의 환기나 경고 등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어 감탄형 종결어미 ‘-군요’ 등이 갖는 처음 알게 되거나 새삼스럽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각종 색채의 감탄 의미도 출현할 수 있다. 즉, ‘(애타게 기다리던) 차가 드디어 왔네. 왓싸!’, ‘차가 왔어! 빨리 나와 봐!’ 등과 같이 ‘기쁨, 좋아함, 놀라움, ……’ 등과 같은 감탄 의미도 표현될 수 있다.

연구로는 강신(2004)의 연구가 주목받는다. 그는 여기에서 첨사들의 개별적인 의미와 기능뿐만 아니라 이들이 분포상의 제약을 받고 있음을 규명하며, 첨사들의 연쇄체가 무질서하게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닌 정연한 배열순서와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첨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간단한 소개에 그치기로 한다. 각 양태 첨사에 대한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저서를 참조 바람(강신, 앞의 책, 2004, 51~92쪽).

(10. ㄹ) 예문의 경우는 (10. ㄷ) 평서문의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일반적 서술 바탕 위에 ‘*даа*’ 첨사가 지닌 ‘단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첨가됨으로써, 해당 문장은 주로 ‘역시 생각했던 대로 잘되고 있네!’와 같이 확신, 단언하는 듯한 양태적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전후 문맥, 각종 억양, 발화 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단언의 의미뿐만 아니라 ‘역시 기대 이상으로 잘되고 있는걸!’, ‘역시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걸! 능력자야!’ 등과 같이 ‘기쁨, 좋아함, 놀라움, 축하, ……」 등 다양한 감탄의 의미도 나올 수 있다.

정리하면, 여기서 살펴본 평서문 뒤에 양태 첨사를 덧붙여 사용한 첨사 감탄문은 의미상으로 한국어의 감탄형 종결어미 감탄문과 자연스럽게 대응됨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몽골어 감탄문에 대한 유형, 구성 및 그의 의미, 기능 등을 종합, 정리해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어 감탄문과 서로 대조 분석해 보았다. 몽골어 감탄문의 유형을 1) 문말 억양/어조 감탄문, 2) 서술어 반복 감탄문, 3) 감탄사, 호칭어 감탄문, 4) 의문사 감탄문, 5) 첨사(양태 첨사) 감탄문 등으로 분류하고, 한국어 감탄문을 구성하는 감탄형 종결어미들과의 대응 예를 살펴며 서로 대조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몇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양 언어는 억양, 어조, 감탄사 등을 활용하여 감탄문을 실현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몽골어와 한국어는 감탄문을 형성하는 방식에서 일부 차이를 보인다. 즉, 몽골어의 경우 감탄문은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의 문말 종결 형태가 변하지 않고, 대신 억양과 어조 등을 통해 감탄의 의미를 전달한다. 한편, 한국어는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을 구성하는 종결어미처럼 별도의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해 감탄의 의미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 몽골어는 감탄문을 형성할 때 문장 구조나 종결어미의 사용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한국어는 감탄문을 형성할 때 감탄형 종결어미를 도입하며 문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또한 몽골어는 종결 서술어 뒤에 각종 양태 첨사를 별도로 덧붙여 씀으로써 감탄문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한국어에는 이와 같은 방법이 없다.

한국어에서 말하는 감탄문은 주로 1인칭 화자와 평서문 등에 상관되지만, 몽골어의 감탄문은 다양한 유형(평서형, 명령·청유형, 의문형)에 따라 1인칭 화자뿐만 아니라 2인칭, 3인칭 청자 모두와 관련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의미상으로 1인칭 화자의 평서형 감탄문의 경우는 한국어 감탄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2·3인칭의 청자와 관련되는 명령·청유형 감탄문, 의문형 감탄문의 경우는 차이를 보인다. 즉, 한국어의 감탄형 어미-(는)군요, -(는)구나’가 갖고 있는 처음 알거나 새롭게 알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감탄과 놀라움의 의미라기보다는 주로 주의, 경고, 비난, 질책, 화냄 등의 의미가 들어간 주의, 경고문의 성격이 짙어짐을 알 수 있었다.

문어체에서 현대몽골어 문장의 가시적 형태를 보고 우선 감탄문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은 1)

문장의 끝에 느낌표의 존재 여부, 2) 문 종결 서술어의 반복 여부, 3) 문장의 시작 부분에 감탄사나 호칭어의 사용 여부(문 앞), 4) 문장의 끝에 양태 첨사의 존재 여부 등이다. 그 밖에는 구어체에서의 문말의 억양이나 어조, 또는 의문사 의문문에서 일부 의문사의 부사어 역할, 화맥 또는 전후 문맥 등과 같은 화용적 요소를 활용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어 감탄문과 대조해 보면, 문장 유형으로는 1) 문장 끝 느낌표의 존재 여부, 2) 문 종결 서술어의 반복 여부, 3) 문장 시작 부분 감탄사의 존재 여부 등으로 우선 감탄문을 판별할 수 있다는 유사점을 갖는다. 반면, 몽골어의 문장 끝에 양태 첨사의 사용 여부와 한국어의 문말에 감탄형 종결어미의 사용 등은 서로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문장 유형 외적 요소로서 높고 길게 발음하는 독특한 억양과 어조, 또는 의문사 의문문에서 일부의 의문사가 부사어 역할을 하는 점 등으로 감탄문을 판별할 수 있다는 점은 양 언어의 유사점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 신, 『현대몽골어 연구』, 문예림, 2004.
- 김승곤, 『21세기 국어의 의향법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11.
- 김종록,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문법』, 도서출판 박이정, 2013.
- 나찬연, 『현대 국어 문법의 이해』, 월인, 2009.
- 남기십 · 고영근 · 유현경 · 최형용,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2019.
- 노대규, 『국어의 감탄문 문법』, 보성문화사, 1983.
- 서정수,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6.
- 유원수, 『몽골의 언어와 문화』, 소나무, 2009.
- 윤석민,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집문당, 2000.
- 이관규,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집문당, 2005.
-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한 길, 『국어종결어미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1.
- 허 용 · 김선정, 『대조언어학』, 소통, 2013.
- 강남옥 · 김기성,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의문문 대조 연구」, 『몽골학』 60, 한국몽골학회, 2021.
- 강 신 · 김기성 · 김기성 · 김학선 · 이성규,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문법 비교 연구』, 한국문화사, 2009.
- 권재일,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1992.
- 김기성,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특수문장(대응, 생략, 도치, 감탄) 대조 연구」, 『몽골학』 24, 한국몽골학회, 2008.
- 김기성, 「한 · 몽 양국 언어 학습자를 위한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평서문 대조 연구」, 『東洋學』 92,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023.
- 김기성, 「현대 한국어와 몽골어의 서법 대조 연구」, 『몽골학』 25, 한국몽골학회, 2008.
- 김기성,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양 언어 학습자를 위한 명령문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85, 二重言語學會, 2021a.
- 김기성, 「현대몽골어와 한국어 양 언어 학습자를 위한 청유문 대조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8: 3, 국제한 국언어문화학회, 2021b.
- 김기성,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감탄사 대조 연구」, 『몽골학』 35, 한국몽골학회, 2013.
- 김학선, 「종결어미」,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문법 비교 연구』, 한국문화사, 2009.
- 두캐운, 「한 · 중 감탄문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박상택, 「한 · 몽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언어학 연구』 28, 한국중원언어학회, 2013.
- 솔몽고, 「한국어와 몽골어의 연결어미와 관형사형어미 비교 고찰」,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송재목, 「한국어와 몽골어의 활용어미 대조 분석 1-몽골어 직설법 어미와 명령법 어미를 중심으로 -, 『한글』 262, 한글학회, 2003a.
- 송재목, 「한국어와 몽골어의 활용어미 대조 분석 2-몽골어 동명사어미와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 『언어학』 37, 한국언어학회, 2003b.
- 에브렌셀 펠린 에브리, 「한·터 감탄 표현 대조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2018.
- 이하영, 「한국어와 일본어의 종결 억양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 鄭堤文, 「할하방언의 언어구조, 『몽골어와 통구스어』, 민음사, 1986.
- 조민하, 「한국어 감탄문 설정의 비판적 고찰-구어 반말체 종결 어미의 억양 분석을 통하여 -, 『우리말글』 80, 우리말글학회, 2019.
- Yao Ze, 「한·중 감탄문의 대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22.
- Rita Kullmann · D.Tserenpil, *Mongolian Grammar*, Jensco Ltd., Hong Kong, 1996.
- Б.Базилхан, 「Цаг заах хэлбэр,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зүй,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хэрэг эрхлэх хороо, Улаанбаатар, 1966.
- Б.Пүрэв-Очир,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өгүүлбэрзүй*, Улаанбаатар, 1997.
- Б.Пүрэв-Очир · А.Цог-Очир · Ө.Мөнхдолгор, 「Анхааруулах өгүүлбэр,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Их Сургууль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Сургууль Монгол Хэлшинжлэлийн тэнхим,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2012.
- Б.Рагчаа · Ц.Жанчивдорж, *Монгол хэлний өгүүлбэр зүй-7 дугаар ангид үзнэ*, Улаанбаатар, 1968.
- Ж.Төмөрцэрэн, 「Анхааруулах өгүүлбэр,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 зүй,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хэрэг эрхлэх хороо, Улаанбаатар, 1966.
- М.Базаррагчаа · О.Самбуудорж · Б.Мөнгөнцэцэг · Л.Цэрэнчимэд, *Монгол хэл судлал XI боть өгүүлбэрзүй*, Улаанбаатар, 2022.
- Ц.Өнөрбаян, 「Үйл үгийн төгсөх нөхцөл,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згүүн байгуулалт, Улаанбаатар, 1987.
- Ц.Өнөрбая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зүй*, Улаанбаатар, 2004.
- Цэндсүрэнгийн Тэрбиш, *Монгол хэл өөрөө сур*, Улаанбаатар, 1994.
- Ш.Барайшир, 「Анхааруулах өгүүлбэр,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өгүүлбэрзүй, Улаанбаатар, 1989.
- Ш.Лувсанванда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зүйн сурах бичиг* (дэд дэвтэр, үгүүлбэрийн зүй, дунд сургуулийн 6-7 дугаар ангид үзнэ),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Улаанбаатар, 1956.

Ш.Лувсанванда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бүтэц* (Монгол хэлний үг, нөхцөл хоёр нь), БНМАУ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Улаанбаатар, 1968.

Ю.Мөнх-Амгалан · Кан Шин,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бүтээвэр судлал II*, Улаанбаатар, 201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감탄문」,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검색일 : 2023.11.20.)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30일에 투고되어,
2023년 12월 1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4년 1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4년 1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between the Exclamatory Sentence of Modern Mongolian and Korean For Korean Learners of Mongolian and Mongolian Learners of Korean

Kim, Kisung*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composition, meaning, and functions of Mongolian exclamatory sentences,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n exclamatory sentences. The types of Mongolian exclamatory sentences were classified into 1) sentence-ending intonation/tone exclamatory sentences, 2) repetitive verb exclamatory sentences, 3) exclamatory words, address terms exclamatory sentences, 4) interrogative word exclamatory sentences, 5) particle (modal particle) exclamatory sentences, etc., and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examining the corresponding examples of exclamatory endings that constitute Korean exclamatory sentences. As a result, several characteristics were found.

Firstly, both Mongolian and Korean share similarities in expressing exclamatory sentences by utilizing intonation, tone, and interjection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way Mongolian and Korean form exclamatory sentences. That is, in the case of Mongolian, the sentence-ending forms of declarative sentences, imperative sentences, and interrogative sentences do not change in exclamatory sentences, and instead, the meaning of exclamation is conveyed through intonation and tone.

Meanwhile, Korean uses separate exclamatory endings to express exclamation, just like it uses different endings to form declarative, imperative, request and interrogative sentences. In other words, while Mongolian does not undergo significant changes in sentence structure or use of endings when forming exclamatory sentences, Korean introduces exclamatory endings and changes the form of the sentence when forming exclamatory sentences.

Also, Mongolian forms exclamatory sentences by attaching various modal particle separately after the final predicate, but Korean does not have such a method.

[Keywords] Modern Mongolian(현대몽골어), Exclamatory sentence(감탄문), Intonation(억양), Tone(어조), Interjection(감탄사), Address terms(호칭어), Interrogative word(의문사), Particle(첨사), Modal particle(양태 첨사), Exclamatory endings(감탄형 종결어미)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Mongolian Studies, School of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Dankook University